

관념 속의 불, 실생활 속의 불

마르시에 미들브룩(Marcie Middlebrooks)

번쩍이며 흘러간다. 너울거리며 눈부시게 한 다. 찬찬히 연소하면서 빛을 발한다. 자유 자재로 생겨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람이 없으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오행의 하나로 여겼으며 고대 그리스인들과 인도인은 네 가지 근본 요소의 하나로 생각했다. 네 요소는 바람, 땅, 물 그리고 인간에게는 참으로 유용하나 잘못 다루면 해가 되는 불을 말한다.



불은 여러 이유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다. 불이 없었다면 인간의 생존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한 동굴로부터 전해진다. 그 동굴의 밑바닥을 깊이 파 들어가면 물어뜯긴 뼈의 잔해가 나온다. 인근에 살던 육식동물이 먹다 남긴 찌꺼기이다. 이 조각난 뼈 중에는 고대 원인(原人)의 유해(遺骸)가 많다. 이러한 뼈 위에 있는 다른 지층에는 목탄층이 있는데 이는 인간이 불을 다루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다. 목탄층에도 뼈가 흩어져 있지만 목탄층의 뼈는 상당히 다르다. 원인의 유해가 아니라 원인이 먹다 남긴 동물들의 뼈이다. 이 목탄층은 사람이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전환했음을 증명한다. 원인이 불을 다루게 된 이후 목탄 흔적은 그들의 분포 확대를 말해준다.

인류 초기부터 불과 사람은 다채롭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였다. 자연 마찰 혹은 번개에 의한 발화 외에는 불은 인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불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고, 불의 사용 영역이 넓어질수록 인간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 이렇게 사람과 불은 상승작용을 한다. 불이 인류문화에서 중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당연하다. 즉 불은 인류 여

러 민족문화에 중요한 상징적 위치를 차지한다.

불은 청결, 정열, 불멸 그리고 성스러움을 상징한다. 아프리카의 브위티족은 꺼진 불을 다시 점화하여 우주를 새롭게 창조한다. 유대인과 기독교도들에게 '영원의 빛'은 하나님이 함께 함을 상징한다. 불타는 관목과 백성을 인도하는 불기둥은 기독교 속의 불의 상징성의 한 예이다. 물론 배화교(拜火敎)에도 불은 중요한 상징이다. 불꽃의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불변인 불은 흔히 '영원한 기억'의 표상이다. 무명용사, 체로키족, 나찌의 희생자들, 엘비스 프레슬리마저도 '영원의 햇불'로 각인되었다.

이러한 영원의 햇불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고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는 영원의 햇불은 한번 꺼진 적이 있다. 카톨릭 학교 학생들이 성수를 부었을 때였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에 있는 영원의 햇불은 맥주를 애호하는 축구 팬의 방뇨로 꺼진 적이 있다. 집단 기억 속에서 볼 수 있는 불멸성 외에도 불은 진정한 불멸성을 준다고 한다. 고대 인도에서 화장용 장작은 영원으로 향하는 디딤돌이었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자발적으로 장작에 올라 화염에 몸을 바쳤다. 알렉산더의 정복활동을 기록한 그리스 사가들은 인도인 수행자들이 알렉산더와 그리스군 앞에서 분신(焚身)하는 충격적 장면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분신은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에도 등장한다.(인도에서는 아그니라고 하는 불의 신의 이름을 따서 '아그니프라베샤'로 부른다)

불이 인간과 우주의 쇄신, 영원성 부여를 뜻한다는 것 외에도 불은 파괴의 수단이며 상징이다. 서양 세계에서는 불은 지옥을 연상시킨다. 또 종말론 이야기에서 불은 주된 역할을 한다. 불은 파스한 난로에서 품은

문명을 상징하는 한편, 파괴와 원시적인 폭도를 은유한다. 영어에서 '와일드 파이어'(wild fire, 들불)는 불의 야만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그 유명한 유럽의 문필가 카네티는 그칠줄 모르는 욕망을 불로 표현했다. 카네티는 군중을 묘사하는데 불을 첫 번째 상징으로 채택하였다. 탐욕에 가득 차있고, 거칠고, 원시적인 불같은 군중. 불의 창조적인 면과 파괴적인 면은 거의 불가분한 관계이다. "불은 헤아릴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인데 생산적인지 파괴적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로마의 박물학자인 플리니가 불의 변덕스러움을 표현했다.

카네티와 플리니의 말에서 보듯이 인간 상상력에 나타나는 불은 양면성을 가진다. 민속 문화 속의 불을 이해하려면 불을 하나의 테크놀러지로 인식하는 것이 좋다. 불로 말미암아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 음식조리, 훈제처리, 금속제련, 농지로의 전용을 위한 산림 태우기 등 모두 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또



[그림 1]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가 사슬에 묶여 고통 받는 모습
Dirck van Baburen 1623년

불로 인해 창검의 제작, 연마가 가능하다. 불의 창조성이 파괴를 가능케 한다. 환경파괴와 전쟁의 파괴력 확대의 주범이기도 했다. 어찌 보면 불은 테크놀리지의 어머니이며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자랑했다고 한다. “나는 이로서 인간의 모든 기술의 원천을 주었다.” 그렇지만 프로메테우스의 선물은 자신의 몰락을 재촉하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산에 묶여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이 뜯어 먹히는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널리 알려진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처럼 인간이 불을 최초로 다스린 이야기에는 속임수와 테크놀리지가 자주 등장한다. 브라질의 카야포족의 불의 사용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한 예이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토케라는 젊은이가 우연히 자식이 없는 재규어를 만나서 양자가 되기로 했다. 재규어의 집에 이르렀을 때 보토케는 불타는 커다란 나무를 보고 놀라 “연기를 내뿜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재규어는 불이라고 대답하고, “밤에 따뜻함을 느끼면 더 잘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규어는 보토케가 처음으로 맛보는 삶은 고기와 활, 화살을 주었다. 시간이 흐른 후 보토케는 활과 화살을 지니고 인간의 마을로 슬며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삶은 고기를 맛보게 했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알게 되자 재규어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도작했을 때 재규어가 집에 없어서 삶은 고기와 불을 훔쳤다. 그 이후 카야포 마을에서는 밤이 어둡지 않았고 따뜻했으며 삶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재규어는 활, 화살의 비밀과 불을 가지고 도주한 보토케에 격노하였다. 그때부터 재규어의 마음은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찼다. 재규어의 눈에는 항상 불길

이글거렸고 날고기만 먹었다.

카야포족의 불에 대한 설화는 인간인 보토케와 재규어 사이의 입양(친족 관계)의 파기를 말한다. 카야포족, 즉 인간은 불의 획득과 함께 활과 화살의 비밀도 얻었다. 즉 인간은 재규어의 사냥술을 능가하게 되었다. 사람의 수중에 있는 불의 힘-창조와 파괴의 힘-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타는 불은 전근대 시대에 비해 외경심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테크놀리지로서의 불은 세계 곳곳에 널려있다. 불은 인간의 석유 획득 욕구를 촉진하며 핵 관련 기술의 바탕이 된다. 이렇듯 불은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에게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불의 힘은 창조적 혹은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으나 이는 사람이 불을 다루기 나름이다. ☯



[그림 2] 요루바족의 여러 신중에 하나인 오군을 현대 미술가가 표현한 것이다. 오군은 불의 신이며 철과 무기의 신이기도 하다. 오군은 아프리카와 미대륙에서 특히 브라질, 쿠바에서 주로 숭배된다.